75세에 프로축구 선수 된 남자

70대에 프로 축구선수가 된 남자의 사연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이집트의 식스스옥토버시티 클럽은 최근 75세인 에즈엘딘 바하더(사진)와 선수 계약을 체결했다.

네 아이의 아버지이자 여섯 손자의 할아버지인 바하더그는 6살 때부터 카이로의 길거리에서 공을 찼지만,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토지 관련 전문가로 일하면서 프로축구선수의 꿈을 접어야 했다.

하지만 최근, 그는 다시금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는 축구 클럽에서 정식 프로선수로 활동하기 위해 꾸준히 문을 두드렸고, 결국 식스스옥토버시티 클럽이 그의 입단을 정식으로 승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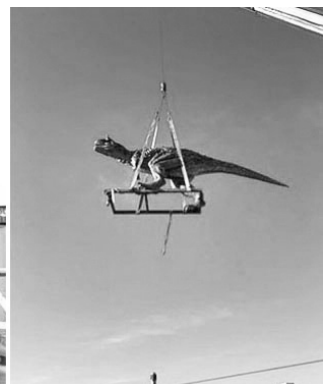
현재 그는 경기에 투입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해 구단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있으며, 훈련이 끝난 후에도 집에서 개인 트레이너와 개별 훈련도 이어가고 있다.

그가 세계 최고령 프로축구선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90분에 달하는 경기를 두 차례 이상 완벽하게 소화해내야 한다. 세계 기네스기록 담당자가 참석하는 그의 데뷔 경기는 오는 3월 열릴 예정이다.

바하더의 개인 트레이너는 "나이로 봤을 때 그에게 이는 매우 큰 도전인 것처럼 보인다." 면서 "하지만 이러한 도전은 프로축구선수가 되겠다는 동기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고 전했다.

한편 현재 세계 기네스기록에 올라 있는 최고령 프로축구선수는 이스라엘의 이삭 하이크가 보유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4월 73세의 나이로 경기를 무사히 마쳐 '최고령 축구선수' 타이틀을 획득했다.

주문한 '공룡 모형' 받고 기겁한 아빠



지난해 말 영국해협 건지섬에 사는 안드레 비송 씨는 1000파운드(약 140달러)짜리 공룡 모형을 주문했다. 디즈니 만화 '다이노소어' 를 본 뒤 공룡에 푹 빠져 있는 아들을 위해서였다.

아버지는 "네 살배기 아들 테오가 공룡을 무척 좋아하는데, 아내가 인근 섬의 놀이공원에서 오래된 공룡 모형 하나를 팔고 있다고 귀띔해주었다. 농담 삼아 한 얘기였지만 아들을 위해 구매를 결정했다." 라고 밝혔다.

아들이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카르노타우루스' 모형이라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들었다. 눈 위에 뿔이 나 있는 생김새 때문에 '고기를 먹는 황소' 라는 뜻의 이름이 붙은 카르노타우루스는 백악기 초기 서식했던 육식공룡이다.

그러나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던 공룡 모형이 도착했을 때 가족들은 헛웃음을 터트릴 수밖에 없었다. 진짜 공룡 크기의 조각상이 날아온 것이다.

아버지는 "기껏해야 9피트(약 2.75m) 정도일 것으로 생각했던 모형은 20피트(약 6m)가 넘는 거대 조각상이었다." 며 "배송회사에서 모형이 너무 커서 트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연락이 왔다." 고 말했다. 카르노타우루스는 실제 약 6m~8m 정도다.

아버지는 "온라인으로 모형을 구매할 당시 사진 외에 다른 세부사항도 적혀있지 않았다." 라면서 "실제 크기의 카르노타우루스를 보고 믿을 수가 없었다." 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룡 모형을 보고서는 그저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다." 며 "공룡 모현을 마당에 설치하기 위해 크레인을 동원하는 동안 영문을 모르는 아들은 신이 나 어쩔 줄을 몰랐다." 고 전했다.

이후 공룡 조각상에 얽힌 사연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아버지는 쏟아지는 관심에 놀라며 "아버지의 아들 사랑, 아들의 애완 공룡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질 줄은 몰랐다." 라고 웃었다.

우주복? 할로윈 의상?

▲ 이란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개한 우주복(사진 왼쪽), 오른쪽은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우주복 코스튬

이란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유인 캡슐을 우주로 발사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개한 '이란 우주복' 이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아동용 모의 우주복' 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곤경에 처했다.

10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모하마드 어자리-자흐로미 이란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란 우주인이 입게 될 우주복이라며 은색 슈트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 사진은 곧 조롱의 대상이 됐다. 네티즌들이 문제의 슈트가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아동용 모의 우주복과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네티즌들은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아동용 우주복에서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마크를 뗀 것과 거의 비슷한 디자인" 이라며 조롱했다.

한 네티즌은 "정보통신부 장관이 할로윈 의상을 구입한 뒤 NASA 로고만 제거하고 이란 국기를 붙였다." 며 "이란 정권의 무능함을 엿볼 수 있다." 고 비아냥거렸다.

이와 관련해 어자리-자흐로미 장관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란은 이란 우주항공연구소에 190㎞ 상공 궤도에 다다를 수 있는 1,700㎏짜리 유인 우주 캡슐 5기의 제작이 곧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란은 자체 개발한 환경 연구용 인공위상을 발사할 예정이며, 서방에서는 이란의 인공위성 발사 기술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이 있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Allstate
You're in good hands.

© 2019 Allstate Insurance Co.

9772519

라인댄스 초,중급 반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